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성재민*

I.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이하 KLIPS)에서 조사된 근로시간 자료의 특성 및 2002년 이후 근로시간 단축 포괄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는 주당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도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분석대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앞둔 기업들은 먼저 월 2회 토요일무를 통해 42시간제와 같은 중간단계를 거쳐 40시간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이와 같은 단계적 이행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므로, 이런 기업들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고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 2004년 토요일 근무형태가 변화했다고 응답한 모든 사람들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¹⁾로 2004년 현재 일요일만 쉰다고 응답한 사람들²⁾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고 분석할 것이다. 2004년 이전에 토요일 근무형태가 바뀐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분석이 복잡해지므로 이들은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04년에 토요일 근무형태가 바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편의(bias)를 줄이기 위해 2003년과 2004년에 동일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³⁾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노동패널팀 책임연구원(seongjm@kli.re.kr).

1) 부가조사 설문지 문 3-3을 이용해 통제하였다.
2) 부가조사 설문지 문 3, 문 3-1을 이용해 통제하였다.

II. 실근로시간에 미친 효과

<표 1>은 주당 평균근로시간 변화를 2003년과 2004년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실’근로시간으로서,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주당근로시간을 뜻하며,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근로시간에 초과근로시간을 합쳐 계산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토요일 근무형태가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03년 50.0시간에서 46.1시간으로 3.9시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 반면, 토요일에 쉬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3년 51.4시간, 2004년 51.6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처럼 각 연도간에 비교한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토요일 근무가 변한 사람들의 경우도 경기순환과 같은 각 연도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충격 때문에 같은 기간중에 근로시간이 변화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⁵⁾

<표 1> 토요일 근무 변화여부별 2003~2004년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변화

(단위 : 시간, 명)

		주당 평균근로시간	표본수
토요일 근무 변했다	2003년(A)	50.0 (8.8)	235
	2004년(B)	46.1 (8.4)	245
	근로시간 변화(A-B)	-3.9시간	
	변화율	-7.8%	
토요일에 쉬지 않는다	2003년(C)	51.4 (15.8)	1,848
	2004년(D)	51.6 (15.1)	1,932
	근로시간 변화(C-D)	0.2시간	
	변화율	0.4%	

주 : 1) 토요일 근무 형태별 각 연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같다는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토요일 근무 변한 집단은 평균이 같다는 가설을 0.01% 수준에서 기각했고, 토요일에 쉬지 않는 집단은 기각하지 못했다.

2) ()안은 표준오차.

- 3) 7차년도 조사에서 유형 1에 응답한 사람들이 분석대상자이다.
- 4) 통계적으로도 1% 수준에서 유의했다.
- 5) 1,000인 이상 대기업이 대상이었던 2004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은 공공부문과 금융업을 제외하면 주로 수출대기업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변수가 없었을 경우 내수침체-수출호조가 특징인 2004년 경기순환의 특성상 토요일 근무 변했던 집단의 근로시간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표 1>을 다시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업체 규모가 1,000인 이상일 경우 토요일 근무형태 변환 사람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03년 50.7시간에서 46.1시간으로 줄어든 데에 비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요일에만 쉬고 있는 사람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03년이나 2004년 각각 52.5시간 52.2시간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는 사업체 규모가 1,000인 미만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토요일 근무형태가 변했을 경우 2003년 50.1시간에서 2004년 47.4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일요일만 쉰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2003년 53.1시간, 2004년 53.4시간으로 유의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2> 토요일 근무 변화여부별, 사업장 규모별 2003~2004년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변화

(단위: 시간, 명)

사업체 규모	근로시간 변화여부	연 도	주당 평균근로시간	근로시간 변화
1,000인 이상	토요일 근무형태 변했음	2003	50.7 (8.5)	-4.6시간
		2004	46.1 (10.6)	
	일요일만 쉰다	2003	52.5 (12.9)	-0.3시간
		2004	52.2 (13.8)	
1,000인 미만	토요일 근무형태 변했음	2003	50.1 (9.7)	-2.7시간
		2004	47.4 (8.0)	
	일요일만 쉰다	2003	53.1 (15.4)	0.3시간
		2004	53.4 (14.2)	

주: 결측치 제외.

평균에서의 변화가 꼭 근로시간 전체 분포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분포의 형태도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자료를 분위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3 참조). 근로시간을 가장 짧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긴 사람까지 한 줄로 세울 때 그 중 첫 5%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로시간이 5% 분위수이다. 이를 테면 100명 근로자가 있다면 5번째로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의 근로시간이 5% 분위수에 해당한다.

<표 3>의 결론부터 말하면 토요일 근무형태가 변했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2003년 당시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2004년 근로시간이 더 많이 짧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토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더라도 일단 회사에 나가면 4시간만에 퇴근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일하던 사람들이 토요일에 아예 나가지 않게 됨으로써 더 많은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은 2003년에 40시간, 2004년에 40시간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25% 분위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은 각각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90% 분위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61.2시간에서 56시간으로, 95% 분위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7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무려 10시간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이 길었던 쪽에서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컸고, 원래 근로시간 40시간 정도였던 쪽에서는 별 변화가 없었다. 반면, 토요일에 쉬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3년이나 2004년에 전분위수에 걸쳐 어떤 유의미한 근로시간의 변화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분위수별 주당근무시간 변화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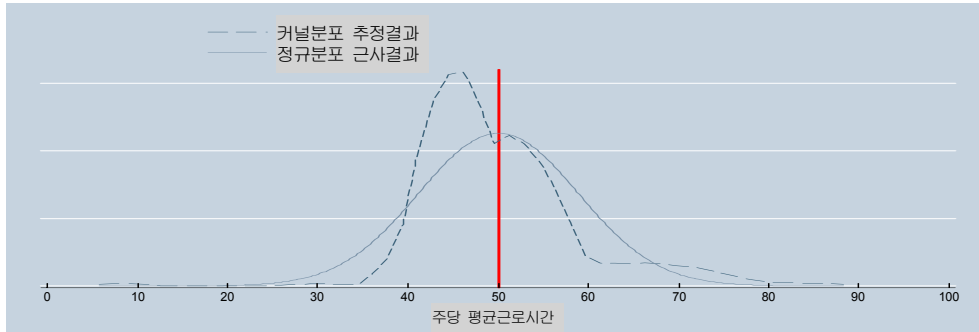
	토요일 근무 변했다		토요일에 쉬지 않는다	
	2003	2004	2003	2004
5% 분위수	40	40	24	24
25% 분위수	44	40	44	44
50% 분위수	48	44	49	50
60% 분위수	50	45	54	54
75% 분위수	54	50	60	60
90% 분위수	61.2	56	72	72
95% 분위수	70	60	78	77

근로시간의 분포를 그려 보아도 <표 3>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변화 전의 근로시간 분포를, [그림 2]는 변화 후의 근로시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변화 전에 비해 변화 후의 분포가 조금씩 좌측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분포 근사결과를 보면 50시간을 기준으로 정점이 좌측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커널분포 추정결과⁶⁾를 보면, 가장 높은 정점의 위치가 이전에 비해 40시간 쪽으로 좀더 치우쳐 이동해 있고, 50~60시간의 분포가 [그림 2]에 비해 [그림 1]이 더 두터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근로시간의 분포가 짧은 쪽이 좀더 두터워지고 긴 쪽이 얇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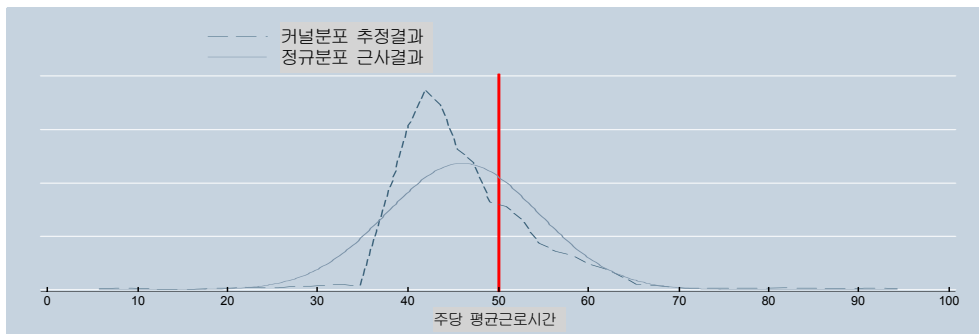
이와 같이 근로시간 분포가 전체적으로 짧은 쪽이 많아지고 긴 쪽이 줄어들어 근로시간 감소효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재검증할 수 있다. 이중차감 모형(differences-in-differences)이라고 불리는 정책평가기법이 그것인데, 이를 이용하면 좀더 분명하게 경기순환과 같은 2003년과 2004년에 고유한 전체적인 충격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제도 변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커널분포추정이란 분포에 대한 특별한 가정 없이 데이터만을 이용해 해당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그림 1〕 토요일 근무 변화한 집단의 변화 전(2003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



〔그림 2〕 토요일 근무 변화한 집단의 변화 후(2004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



이 모형에 따르면, <표 4>의 ‘토요일 근무 변했다’ 변수는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변수이다.⁷⁾ ‘2004년 더미’ 변수는 2003년과 2004년의 경기 순환과 같은 특정 연도만의 특징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형에 넣은 변수이다.⁸⁾ 이 두 변수를 곱해서 만든 ‘토요일 근무 변했다×2004년’ 변수는 제도 변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변수이다. 제도 변화 요인 외에 2004년에만 존재하는 다른 요인 – 경기 순환이나 천재지변 등 – 때문에 우연히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이라면 ‘2004년 더미’ 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이 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 변했다×2004년’ 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제도 변화의 효과가 이중차감 모형에서 식별(identification)되었다고 한다.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2004년 더미’ 변수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은 반면, ‘토요일 근무 변했다×2004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변형한 값을 사용했으므로, ‘토요일

7) 토요일 근무 변했으면=1, 아니면=0.

8) 2003년=0, 2004년=1.

근무 변했다×2004년' 변수의 계수값 -0.09는 제도 변화로 인해 근로시간이 9%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표 4〉 이중차감 모형에 의한 검증

	계수값
절편	3.88*** (0.01)
토요일 근무 변했다	0.02 (0.03)
2004년 더미	0.01 (0.01)
토요일 근무 변했다×2004년	-0.09*** (0.04)

주: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R^2=0.002$. $F=3.16^{**}$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회의적 전망이 존재했지만, 지난해의 근로시간 데이터는 지금까지 분석한 것처럼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좀더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더 많은 요인을 통제할 때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에 준 영향은 더 커질 수도, 더 작아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근로시간이 본 분석에서와 같이 단축되었다 할지라도 본 분석이 기초한 7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제도 변화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단지 단기적인 영향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좀더 심층적으로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가운데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또한 좀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실근로시간에 대한 효과는 본 분석에서와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Ⅲ. 근로형태와 생활에 미친 효과

다음으로 이와 같은 실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어떤 방식으로 흡수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휴가제도의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는 2004년 토요일근무를 실시하면서 평일 근로시간이나 휴일 및 휴가에서 조정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조정이 없었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66.4%였으며,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있었다는 응답은 33.6%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평일 근무시간 조정이 10.0%, 연월차 조정이 16.8%, 연월차 이외 휴일·휴가 조정이 6.1%였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장의 경우 휴가·휴일 및 평일 근무

시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흡수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2004년 토요일 근무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의 평일 근로시간 혹은 휴가 조정

	조정이 없었다	평일 근무시간을 조정하였다	연월차 휴가가 조정되었다	연월차 이외의 휴일·휴가가 조정되었다	기 타	전 체
비중(%)	66.4	10.0	16.8	6.1	0.7	100.0

주: 부가조사 문 3-4를 이용하였음.

정규근무시간을 변경하면서 추가적인 고용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단위 고용흐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또 다른 효과는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을 늘렸을 가능성이다. 이 역시 노동패널조사로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이것이 정확한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함의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은 먼저 파트타임 같은 시간제 근로자 활용이 늘었는지를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보면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오면서 다른 규모에서는 시간제 근로 비중이 줄었으나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시간제 근로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은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 추이를 보여주는데, 2003년에 비해 2004년 1,000인 이상은 2.4% 증가하였다. 100인 미만도 증가하였으나 1.2%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이 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 6〉 시간제 근로 비중 추이

(단위: %)

	100인 미만	100~999인	1,000인 이상
2003	8.3	4.1	6.3
2004	7.0	3.4	7.7

〈표 7〉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 추이

(단위: %)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2003	21.4	10.7	8.1	16.7
2004	22.6	10.6	8.3	19.1

임금에 대한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기업의 생산성이나 매출액 변화를 노동패널자료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았다. 기업 데이터가 아닌 노동패널의 특성상 객관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근무시간 관리나 노동강도가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에 대한 주관적인 예상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41.4%가, 근무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39.6%가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기업의 노무관리가 좀더 강화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근로시간 단축시 노동강도와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예상

(단위: %)

	대폭 강화될 것	약간 강화될 것	별 차이 없을 것	약간 완화될 것	대폭 완화될 것
노동강도	4.8	36.6	57.5	1.1	0.0
근무시간 관리	3.9	35.7	59.5	0.9	0.0

주: 임금근로자만 응답.

정리하면 휴일·휴가제도의 변경, 비정규직의 활용, 노동강도 강화 등의 방식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동패널조사가 가구조사라는 특성상 추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해야만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을까? 노동패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 및 직장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질문하고 있는데, 다른 지표들에서는 그리 유의한 변화를 낳았다고 보기 힘들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토요일근무가 변한 사람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폭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일요일에만 쉬는 사람의 경우 미미하게 악화된 데에 반해 토요일근무가 변한 사람들의 경우 미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아직 사람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해 생활의 패턴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조사에 응답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시간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다양하게 시간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할 인프라가 확충되고 사람들도 변화된 생활패턴에 적응하게 될 경우 보다 명확한 삶의 질 지표의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9〉 근로시간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변화

		토요근무 변화했다	일요일만 쉰다
		평균값	평균값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2003	2.70 (0.88)	3.03 (0.81)
	2004	2.54 (0.79)	3.03 (0.86)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2003	2.51 (0.55)	2.76 (0.63)
	2004	2.47 (0.67)	2.79 (0.68)

주: 근로시간 및 생활만족도는 수치가 줄어들어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축된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지를 조사해 보았다. 부가조사 문 21의 “2002년 1월 이후 귀 사업장의 정규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늘어난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를 조사하였고, 아직 단축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만약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늘어난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질문하였다.

<표 10>에 결과가 요약되어 있는데, 이 결과는 질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하지만 일종의 희망사항과 당면한 현실의 차이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11.4%였지만, 실제 단축된 사람의 경우에는 4.6%만이 추가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소득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갖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가사일은 7.2%만이 1순

〈표 10〉 늘어난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와 보내고 싶은지

(단위: %)

	정규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실제 한 일)	정규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하고 싶은 일)
추가적인 소득활동	4.6	11.4
가사일	11.8	7.2
자기개발	25.4	20.7
수면 등 휴식	16.5	14.7
TV 시청	2.0	1.0
여행/관광/나들이	17.4	22.6
운동/스포츠	13.3	14.6
오락/게임	1.1	0.5
사교/모임활동	4.6	3.6
사회활동/봉사활동	0.9	1.1
종교활동	1.3	1.6
기타	1.1	0.7

주: 부가조사 문 21-1과 문 21-2의 1순위 응답만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정리했음.

위로 희망했지만 4.6%포인트 높은 11.8%의 사람들이 실제 가사일을 하였다. 자기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25.4%, 수면 등 휴식으로 보내는 사람도 16.5%나 되었고, 여행이나 관광/나들이는 희망(22.6%)에 비해 낮은 17.4%의 실현수준을 보였다.

IV. 결론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비정규 고용의 증대, 휴가제 변화,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실생활에서 자기개발을 늘리고 여행을 다닌다든지 운동을 더 한다든지 하는 생활방식의 긍정적인 변화 또한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난 호에서 지적했듯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계적 확대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근로시간의 혜택을 불균등하게 받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이 사회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게 하기 위해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근로시간이 조정되면서 기업간 관계와 기업내 인사관리, 임금 등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가구자료의 특성상 분석이 불가능했다. 향후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면 해당 사업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에 근거한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기적 영향의 분석에 그쳤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된 이후 최초의 연구라는 점, 실근로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nd